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사업 23년

(아름다운재단 연구파트)

이영주,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청년파트 지원사업)

조운아, 전서영, 임주현, 서지희

(아름다운재단 청년파트 캠페인사업)

김성식, 서지원, 유화영



목차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1
자립준비청년사업 히스토리	22
	1.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30
	2. 주거안정지원사업 32
	3.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32
	4. 청년배움사업 33
결국 남는 것은 사람 : 지원사업	5.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34
	6.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35
	7. 통신비지원사업 36
	8.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36
	9.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36
듣다, 그들의 목소리를. 말하다, 나의 권리를 : ‘열여덟 어른’ 캠페인사업	1.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 39
	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 39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 41
	4.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 42
자립준비청년사업 시기별 주요 특성	1. 정책변화 46
	1) 히스토리
	2) 연도별 지원내용
	2. 민간지원 49
	1) 히스토리
	2) 연도별 지원내용
	3. 공공 및 민간의 지원 경향 52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년간 자립준비청년¹⁾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지원사업을 견인해 왔다. 2000년 8월 재단 설립과 함께 아름다운재단의 1호기금 故 김군자 기부자의 뜻에 따라 2001년부터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수행해왔고 현재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민간 비영리 섹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지원 또한 빠르게 변화하였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의한 주요한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보호종료 후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 이내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는데 2019년 최소 500만 원, 2022년 8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권고되었다. 2019년에 처음 신설된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해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3년에는 월 40만 원이고 24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자립준비를 돕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센터 등 시설마다 배치되어 분절적으로 보호아동 자립을 지원하였는데, 2022년에는 17개 시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립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만을 전담하여 사례관리하는 자립전담인력이 120명 배치되었다. 이렇듯 발 빠른 정책 변화는 바로 민간 섹터에서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했기 때문인데, 아름다운재단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행되어왔다.

재단의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재단 1호 기금으로 출발한 이 사업은 ‘가난하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 배울 기회만이라도 가질 수 있길’ 바라는 故김군자 기부자의 뜻에 따라 설계되었다. 2001년 ‘보육시설퇴소및소년소녀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아동양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거쳐 2014년 이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이 정비되었다. 이후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청년배움지원사업’,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매우 기본적인 욕구를 발굴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진학 관련 교육지원 외에도 시설 밖에서 자립하기 위한 실질적 비용인 생활비, 주거비 등 기본적 지원 및 사회적 지지망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지원사업과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하여왔다. 이와 함께 민간 및 공공의 지원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자립에 대한 의미와 접근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된 이유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 영역의 노력과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려는 공공 영역의 노력이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이다.

1) 재단의 지원사업 대상자 명칭은 ‘보육시설퇴소아동’, ‘아동양육시설퇴소대학생’, ‘보호종료청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화되어 왔다. 현재는 사업 수행의 방향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자립준비청년’으로 사용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다만, 사업명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본 명칭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사업 23년



정부 정책의 변화

아름다운재단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열여덟 어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시범 실시

생계지원

- 열여덟 어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 시범사업 효과성 연구 실행

생계지원

2014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개편
-자기계발 등 다양한 배움 지원

교육지원

-학업생활보조비 지원

생계지원

-커뮤니티활동 지원

심리/정서지원

2016

- 주거안정지원사업 시작

주거지원

- 보호종결아동 주거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 연구
- 선진국 사례조사를 통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제도 동향 연구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인상,
지원정책이 없던 지역의 지원 개시(2015)
- 이후 2019년 자립정착금 최소 500만 원 권고 등으로 확대됨

- 연극 <열여덟 어른> 클라우드펀딩 및 초연

- 유튜브 <열여덟 어른TV> 개설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개설

- '어쩌다 사막' 일러스트 굿즈 출시 및 판매
- 런웨이백 출시 및 펀딩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출간
- 연극 <열여덟 어른> 6개 도시 전국투어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 전개 및 당사자 캠페이너 활동 시작
 - 신선, 당사자인터뷰
 - 전안수, 굿즈제작
 - 박도령, 연극 <열여덟 어른>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 전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진행
 - 신선, 당사자 미디어 채널 운영
 - 허진이, 보육원 방문 강연
 - 손자영, 미디어퍼러디
 - 주경민, 캐릭터 디자인 및 웹툰 연재
 - 박한수, 패션제품 디자인
 - 안연주, 동화책 제작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개최

- 국무총리 제38차 목요대화, 한찬희 이사장과 신선, 허진이 캠페이너 참여

2019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 길잡이(선배장학생) 활동 시작
 -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부모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청소년복지시설퇴소경계선지능 청소년주거지원사업 시작
 - 주거지원
 - 심리/정서지원
-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개최

2020

-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성과연구
-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통신비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2021

- 청년배움지원사업 시작
 - 교육지원
 - 심리/정서지원
- 청년스타트업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 교육지원
-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시작
 - 생계지원

정부 정책의 변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월 30만 원 신설(2019.04)
- 정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시작(2019.07)

- 이진명 디지털싱글 '토이스토리' 발매

- 책 《안녕, 열여덟 어른》 출간

•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 전개 및 당사자 프로젝트 진행

- 이진명, 힙합 음원 발매
- 신선, 1:1 방문교육
- 허진이, 고민 팟캐스트
- 손자영,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 조규환, 땡큐 버스킹
- 박강빈, 자립100days
- 강영아, 일촌 파도타기

- 열여덟 어른 신선, 박강빈 캠페이너 청와대 자립준비청년 간담회 참여

- '열여덟 어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행사 개최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행사 개최

- 《안녕, 열여덟 어른》 북콘서트 10회 개최

- '열여덟 어른' 캠페인 브랜딩 영상, 에피어워드 광고제 최고상 수상

- 열여덟 어른 신선, 손자영 캠페이너 대통령직속 자립준비청년 특위 정책지원단 참여

2022

-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시작

심리/정서지원

2023

- 청소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시작

교육지원

심리/정서지원

- 노숙위기청년주거지원사업 시작

주거지원

심리/정서지원

- 가정밖청소년교육비지원사업 시작

교육지원

-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및 캠페인 임팩트 연구 실행

23년

-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발표(2021.07)

- 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2차 발표(2022.11)

- 정부 '대통령직속 자립준비청년 함께서기 위원회' 출범(2023.04)

결국 남는 것은 사람 : 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은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보호종료 이후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작되었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재단의 사업 분류인 8대 영역²⁾ 중 교육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교육영역의 목표는 누구나 언제든지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고 통합 교육 환경이 보장된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으로, 학습을 위한 기초 자원을 보장하여 사회로부터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물질, 사회적 자원을 지원하고자 한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움에 대한 의미를 확대하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도 설계하였다. 또한 주거지원사업도 시작하여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정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총 9개 사업을 수행하였고 2023년 기준으로 5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 자립준비청년은 아니지만 이들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어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위한 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사업 중 가장 오랫동안 전문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왔다. 시설퇴소 이후 학업 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과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한 자립 준비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이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업 지원은 물론 자기계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함께 고려되었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은 자립에 주거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자 요구에 기반한 안정적인 실질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16년 사업기획 당시 실질적 주거비 지원 및 안정적인 주거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첫째, 주거비 지원과 재무상담 등을 통해 자립능력 강화 및 변화 정도를 파악하고 둘째, 현장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고하며 셋째, 주거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주거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은 2020년 시작된 사업으로 기존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한 대학 진학 청년뿐 아니라 비진학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다.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이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대부분 취업을 선택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 더불어 시설 보호 유형과 경험에 따라 주무 부처 및 지원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어 심터 퇴소 청년의 경우 자립 정착금, 자립 수당 등 최소한의 정부 지원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사업이 개발되었다.

청년배움지원사업은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새롭게 기획된 사업이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으로 진로 선택권이 확장되고 참여자 간의 관계망이 지지체계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직업적 진로는 물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인 '자기 주도'의 활동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을 정의하여 사업을 개발하였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중도 퇴소자뿐 아니라 생

2) 아름다운재단은 건강, 교육, 노동, 문화, 안전, 주거, 환경, 사회참여 총 8개 영역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계를 위해 취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진학 청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재단의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이들의 경험 격차를 줄이고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까지 배움의 개념을 확장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의 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1년 시작되었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시설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활해야하는 청년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주거안정지원사업이 주거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꾀하여 자립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다.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경험, 그리고 관계망 형성에 이르는 전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청년배움지원사업과 달리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두고 수행된 사업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종자돈을 지원하여 돈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립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금융 생활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을 생성하고 건강한 재무 습관과 주도적 생애 설계를 정리하여 스스로 성취감과 완결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통신비지원사업은 기부처인 기업의 역량에 근거하여 개발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사업과 차별된다. 즉 통신회사와 연계하여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2년간 휴대폰 및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개발하였다. 사업수행 과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통신비 부담에 대한 현실뿐 아니라 시설퇴소 예정 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휴대폰 개통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요금체납에 대한 부모 혹은 후견인 동의서 요구)을 확인하게 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은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재단에서 진행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지원 수준에서 확장하여 좀더 다양한 취향을 충족하려는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물품으로 구성하여 물품지원의 내용을 확대하였다. 사업은 총 1년간 진행되었다.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기본 지원 수준을 넓혀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권리로 확장하고, 자립준비청년의 관계망 확장 및 지지망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 지원하여 심리 정서적 안정망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관계망 확장 및 지지망 형성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사업은 이러한 관계망 형성을 지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을 근거로 재단 사업 안에서 녹여내고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커뮤니티 활동지원사업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사업 목적

사업명	목적	자원인원(명) 2023 기준	사업 수행 기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안정적인 학업유지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자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모	991	2001년 ~ 현재
주거안정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주거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자립 역량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기반 구축	236	2016년 ~ 2018년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쉼터포함 비진학 자립준비청년)	비진학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활동 및 신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정착 기반 지원	100	2020년 ~ 현재
청년배움지원사업 (비진학자립준비청년)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을 통한 경험 격차 축소 및 선택권 보장,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전망 마련	45	2021년 ~ 현재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의 회복 및 안정적인 사회 정착 도모	146	2021년 ~ 현재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대상 종잣돈과 경제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경제생활을 운용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	150	2021년 ~ 현재
통신비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통신비 지원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139	2021년 ~ 2023년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 지원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지의 경험 제공	385	2022년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 제공 및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전망 마련	100	2022년

아름다운재단은 2001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교육비, 주거비, 문화활동비 등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사업명	구분	내용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 대학 등록금 및 자기계발비 · 학업생활 보조비 : 생활비 등 학업 생활 중 필요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 · 해외 어학연수(별도 선발)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MT, 홀커밍데이, 모니터링 · 작은변화 프로젝트 : 주제별 팀 활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 안정적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주거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주거관리 교육, 재무 교육 및 주거 전문 사례 관리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실터포함 비진학 자립준비청년)	진로 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활동비 : 희망 진로 관련 직접적인 활동 지원 · 활동 보조비 : 공과금, 교통비, 식대 등 진로 활동을 위한 기본 생계비 및 간접비 · 리더십 지원비 : 그룹 리더 활동 보조비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MT,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 희망별프로젝트 : 문화 체험 · 취업 교육 및 특강
청년배움지원사업 (비진학자립준비청년)	배움 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컨설팅을 통한 개별 맞춤형 배움 활동비 지원 · 배움 활동비 :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위한 교육비 및 배움 활동 보조비 지원 · 기초 자립비 : 주거비, 의료비 등의 기초 자립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도래 활동, 결과 공유회, 모니터링 · 1:1상담 :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존감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생활 안정금 지원	·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종잣돈 지원	· 상장지수펀드(ETF) 지원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자립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교육, 1:1 재무 컨설팅 지원 · OT, 결과 공유회
	통신비 지원	· 휴대폰 단말기 1인 1대, 통신비 1년, 휴대폰 수리비 지원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자립 키트 지원	· 보호종료 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선택형 키트 지원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커뮤니티 활동 지원	· 팀별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 OT, MT, 네트워킹 파티

1.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김군자할머니기금’에서 출발하여 2000년 당시 만 18세가 되면 정부 정착금 200만 원으로 자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장학사업이다. 이후 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고액 개인 기부자의 기부가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지원사업은 확대되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특정 지역 및 전공학과를 지원하는 사업이 생기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등록금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2000년대 초반 당시 전무하였던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등록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누구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는 그간 진행해 온 장학사업의 진단과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다. 논의 목적은 민간 영역에서 수행되어 오는 수많은 장학사업과는 차별화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교육 기회의 지원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재단의 배분 철학을 반영한 사업과 브랜드를 개발함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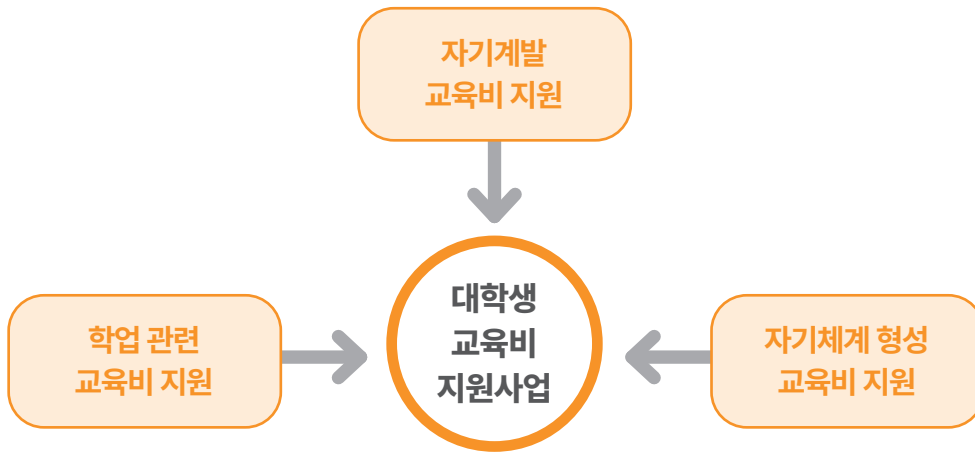
<표 2> 2012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개편 내용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양육 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기존 지역 및 계열 관련 대상 통합) • 기존 신입생 및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양육 시설 및 가정위탁 퇴소 대학생 (기존 지역 및 전공학과 관련 대상 통합) • 기존 신입생 및 재학생에서 재학생만 지원 (첫 학기 등록금·지자체 지원)
지원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2년 지원(기간 연장하여 지원대상자의 학업 안정성 도모)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등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등록금, 자기계발비, 학업생활보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금 지원 이외 학원비, 독서실비 등 자기계발비와 학업생활에 필요한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하여 개인 성장을 위한 실질적 기회 제공 • 해외어학연수 지원(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이 별도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 • 작은변화프로젝트(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후배 장학생간 프로젝트 팀 활동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재단 직접 사업에서 2013년부터는 협력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직접 사업에서 협력 사업으로의 전환은 지원사업의 업무 효율화를 위함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협력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의 확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력 사업을 통해 ① 신규 지원자를 발굴하고 ② 전국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③ 사례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④ 교육비 지원 이외 생계비 지원, 해외어학연수, 온라인 모임,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자립준비청년 역량 강화 및 졸업 이후 자립 준비까지 체계적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자립준비청년의 역량강화 및 지지체계형성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지원사업 내용에 변화를 추구해왔다.

이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의 학업 유지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 자립준비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사업 대상과 운영에 변화를 거듭하였다. 2023년도 지원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구조



교육비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협력 사업을 통해 사업 내용의 확대를 이끌어 온 부분은 큰 임팩트를 창출한 것으로 보인다. 협력 사업의 수행에 있어 재단의 사업방향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 발굴과 지속적인 경험을 통한 아름다운재단만의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등록금 지원에서 자기 계발과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까지 확대되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20년 또한 현 사업 내용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표 3>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포함)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자 또는 연장 보호 대학생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대학 등록금 및 자기계발비 • 학업생활보조비: 생활비 등 학업 생활 중 필요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 • 해외 어학연수(별도 선발)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MT, 홈커밍데이, 체계적 모니터링 • 작은변화 프로젝트: 주제별 팀 활동

2. 주거안정지원사업

본 사업은 재단의 기획의제 사업으로 2016년 당시 자립준비청년이 시설퇴소 및 위탁종결 이후 주거문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현장을 통해 확인한 후 주거에 대한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아동자립지원단과 협력하여 총 3년의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연도별 지원 대상자 수는 변동이 있으나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주거비(보증금, 월세) 지원,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1인당 5회), 주거환경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다. 동시에 선진국의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사례 조사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주거현실을 알리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3.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2020년 기준 23.2%로 전체 대학 진학률 73.7%에 비해 크게 낮다. 즉, 보호종료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다수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졸자에 비해 불안정한 직종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온전히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다. 연평균 근로 및 사업 소득이 1,438만 원, 월평균 123만 원임에 비해 월평균 지출액은 138만 원으로 지출 대비 수입이 약 15만 원 부족하여 자산 형성 기반을 다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³⁾ 결국 생계를 위해 부채가 발생하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적 지원과 동시에 장기적 차원에서 사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지지망 형성을 위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2020년 시작되었다. 사업의 목적은 비진학 자립준비청년의 진로 활동 및 신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 정착 기반 지원이다.

본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이라는 키워드 하에 교육비와 생활안정 지원 이라는 실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지지체계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있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20년 당시 실질적 지원과 함께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고 설계하였다.⁴⁾ 대학 등록금 지원과 같은 일반적인 교육 기회 제공에서 벗어나 대학 비진학자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적 방향성에 있어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은 의미가 있다. 지원사업의 내용은 자기 계발을 위한 지원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립준비청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문화 체험 및 여가 활동을 도구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6). 2016 자립 지원 포럼 보호 종결 아동,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다

4) Ibid.

<표 4>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심터 포함 보호종료 청년 (만18세~만25세)	진로 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활동비: 희망 진로 관련 직접적인 활동 지원 • 활동 보조비: 공과금, 교통비, 식대 등 진로 활동을 위한 기본 생계비 및 간접비 • 리더십 지원비: 그룹 리더 활동 보조비
	자립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MT, 결과공유회, 모니터링 • 희망별프로젝트: 문화체험 • 취업교육 및 특강

본 사업은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작한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에서 출발하여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었으나 대학 진학이 아니라도 삶을 스스로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개별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지체계 형성을 위해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면에서 쉽지 않은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향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4. 청년배움지원사업

청년배움지원사업 역시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과 유사하게 경제적 지원 위주의 기존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립준비청년 스스로 내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시작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이 자립 적용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따라⁵⁾ 사회적 관계망 확립과 내면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었다. 사업의 대상은 보호종료 청년뿐 아니라 종로 연령 이전에 퇴소한 조기 퇴소자를 포함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보호종료청년”을 넘어 “보호경험청년”을 지원한다는 설명에서 그 차별성이 보인다.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과 유사하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배움과 선택권을 보다 더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연계 및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2023년 청년배움지원사업의 특징, 지원 내용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5> 청년배움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또는 보호경험 청년 (만18세~만29세) 중 비진학 또는 취업 준비중인 청년	배움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 컨설팅을 통한 개별맞춤형 배움 활동비 지원 • 배움 활동비: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위한 교육비 및 배움 활동 보조비 지원 • 기초 자립비: 주거비, 의료비 등의 기초 자립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 또래활동, 결과공유회, 모니터링 • 1:1상담: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5) 이해연, 서정아, 조흥식, 정익중.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청년자립정착꿈지원사업과 청년배움지원사업의 사업적 의미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질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자기 계발을 위한 배움과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했다는 점이다.

5.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2021년 ‘보호종료아동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한 위기 해소 및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사회 지원 체계 마련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6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요구조사’⁶⁾에 따르면 자립 후 겪는 문제점 중 경제적 어려움(31.1%)과 주거 문제(24.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20년 조사⁷⁾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월평균 소득이 2019년 127만 원으로 최저임금 179만 원 보다 52만 원 적은 금액이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 4명 중 1명(24.3%)은 생활비, 주거비로 인한 부채가 있었고 빚을 낸 이유는 생활비 총당이 66.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렇듯 현황 조사 결과 보호종료 이후 갑작스럽게 사회로 나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지원하여 적어도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1년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이 시작되었다. 2021년 사업 시작 당시 지원 대상은 전국 시설(아동 복지 시설 및 쉼터 포함) 및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된 만 18세~ 만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지원 대상>

- 결식 노출, 실업(3개월 이상) 등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청년
- 월세, 관리비 등 2회 이상 체납으로 인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이 어려운 청년
-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거나 의료비 체납이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한 청년
- 화재, 가옥 붕괴 등으로 긴급 주거 이전이 필요한 청년 등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에 있어 앞서 살펴본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과 달리 ‘만 18세 ~ 만28세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으로 두고 아무런 지저막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하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긴급한 생계유지에 관한 것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임차 보증금, 국민연금, 저축성 지출, 대출금 및 사채 상환 등이다. 지원 내용에 있어서 본 사업의 방향이 ‘긴급한 생계 지원’임을 알 수 있다. 사업 운영에 있어 함께하는 기관은 크게 협력기관과 수행기관으로 나누어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였다.

6)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7)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 & 김무현. (2020).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표 6>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 청년(만18세~만28세) • 소득기준: 수급 및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생활안정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있어 가장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변화로 보호 연장 연령이 만 24세까지 확대되었고 의료비 지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자로 취업 이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초기 논의 배경을 볼 때 생활비 및 주거비로 인한 부채가 4명 중 1명이며 생활비로 인한 부채가 66.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다. ‘자립’이라는 키워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기본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펴 공공 및 민간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중요하다.

6.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야기한 주거난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 자립 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립 준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14,830명 중 ‘돈 기술 관리’에 참여한 대상자는 1,753명으로 11.8%에 그쳤다. 이러한 배경에 제대로 된 재정 관리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채 생계유지를 위한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건강한 경제생활을 도와 재무적으로 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삶과 욕구에 따라 재무 설계를 하여 경제적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에 사업적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 만 18세~29세로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하여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내용의 특징은 종잣돈 지원에서 출발하여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교육만으로 경제적 환경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본 사업은 종잣돈을 지원하고 이를 스스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표 7>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만18세~만29세)	종잣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지수펀드(ETF)지원
	자립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교육, 1:1 재무 컨설팅 지원 • OT, 결과 공유회

청년경제교육지원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특화된 사업이다.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을 통해 긴급한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수행되었다면 본 사업은 종잣돈을 통한 씨앗에서 출발하여 교육으로 하나의 나무를 잘 키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7. 통신비지원사업

통신비지원사업은 전국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및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통신비 지원을 통해 생활편의를 돕고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지원내용은 필요시 휴대폰 단말기 1인 1대 지원, 통신비 1년 지원, 그리고 휴대폰 수리비 지원이다. 휴대폰은 기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서 지원 필요성이 높고, 통신비의 경우 고정비용으로 전체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 청년스타트키트지원사업

보호종료 이후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된 키트를 지원함으로써 심리 정서적인 지지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총 3개 종류의 선택형 스타트 키트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컨셉으로 한다. 청년의 취향을 반영해 구성된 선택형 키트 외에 모두에게 제공한 공통기본형 키트는 무드등, 상비약, 화분을 담은 상자에 새로운 시작과 삶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넣어 자립을 지지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 참여 청년의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그렇다 89%, 그렇다 11%로 높은 지원 만족도를 나타냈다. 현물지원에 있어 어떤 물품을 지원하고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따라 피드백과 만족도 차이가 있으므로 단기적인 현물지원의 경우 세심한 사업설계가 요구된다.

9.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할 권리로서의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를 갖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확장하고 지지망을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참여자 3인 이상 10인 이하가 팀을 이루어 ‘커뮤니티활동’을 하였다. 본 사업은 ‘심’과 ‘관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참여한 참여자의 경우 관계에 대한 인식과 구체화 등에 대한 동기를 마련하였다.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은 이후 2023년부터 보호대상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청년커뮤니티지원사업은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 제공 및 지지체계 형성을 통한 심리 정서적 안전망 마련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보호종료청년 및 일반 만 19~28세 청년 대상 삶과 가치관 중심 연구’에 따르면, 자립이 우선인 20대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여가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여가의 중요도가 비슷한 일반 20대와 달리 일, 학업의 우선순위가 더 높았으며 자기 스스로 미래를 설계, 책임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으로 여가 시간도 진로와 관련된 활동 위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자립준비청년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일반 20대에 비해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자아 만족도도 일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⁸⁾

지원 대상은 전국 29세 이하 아동 복지 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 청년 100명이다. 활동 내용은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음식을 만들고 공유하기, 플로깅, 여행, 영화나 경기 관람 등 다양하다.

<표 8> 청년커뮤니티활동지원사업

대상	구분	내용
전국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포함)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만 18세~만29세)	커뮤니티활동 지원	• 팀별 커뮤니티활동비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체계 형성	• OT, MT, 네트워킹파티

본 사업은 목표는 1) 행복할 권리로 문화 및 여가를 누릴 기회 제공을 통한 긍정적 효과 경험 2) 자립준비청년 간 관계 확장 및 지지망 형성을 통한 심리 정서적 안전망 마련이다. 사업 결과 참여자들은 다양한 심, 여가의 형태에 접하여 자신의 취향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성인이 된 후 소원해진 기존 관계 개선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 설립과 함께 수행되어온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및 방향성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은 교육 기회 제공에서 출발하였으나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사회 안에서 관계망 확장이 매우 중요하여 이에 관한 역량을 키우는 네트워크 활동까지 지원을 확대하였다. 자립준비청년이 보호 종료 후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시설을 떠나기 전 자립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이란 단순히 직업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청소년 개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경제적 · 심리적 · 사회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기 충족성,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독립성,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회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자립 준비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자립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요인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⁹⁾

이런 차원에서 재단의 지원사업은 경제적 충족에서 관계망 확대까지 단계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에게 ‘사람을 남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앞으로도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은 인적, 물적 자원과 함께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사회 자본에 대한 투여를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8) 대학내일20대연구소,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 (2020). 보호종료 20대의 삶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보고서.
 9)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시설청소년과 보육사들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11, 90-124.

듣다, 그들의 목소리를. 말하다, 나의 권리를 : ‘열여덟 어른’ 캠페인사업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시작은 보호종료 후 자립해야하는 청년의 현실을 다룬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이다. 재단은 2001년 대학생교육비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해 왔는데, 보호종료 이후 청년들이 자립의 현실을 마주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책적 지원의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2013년 진행한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이하 자립정착꿈)은 이후 2019년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의 모티브가 되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2019년 시즌 1을 시작으로 2022년 시즌 3까지 약 4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이슈를 알렸다.

‘자립정착꿈’과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두 캠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캠페인의 소통 방식이다. 두 캠페인의 목적과 목표는 같지만 방식에 있어 ‘자립정착꿈’은 재단의 캠페인 사업단위에서 직접 기획과 수행을 했다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사업단위와 이슈 당사자가 함께 프로젝트를 협업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지난 20년간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캠페인을 수행해왔다. 이슈와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추구하였는데, 자립준비청년 이슈를 다룬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특별히 긴 호흡으로 캠페인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과 임팩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 아름다운재단 자립준비청년 캠페인

시기	캠페인명	사업
2013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조사 • 시범지원사업 • 다이어리 제작 판매 : 판매 - 이벤트 - 참여프로그램
2019-202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의 개별 프로젝트 수행 • 시즌별 당사자 프로젝트의 목적 - 시즌 1: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삶을 알리다 - 시즌 2: 자립준비청년으로 겪는 부정적인 사회 인식의 영향을 미디어에서 찾다 - 시즌 3: 자립준비청년 이슈 스터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와 방향을 보여주다

1.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이후의 현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사회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알린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시작으로 ‘열여덟 어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양육시설의 보호아동들은 만18세가 되면 생활하던 곳에서 퇴소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생존을 위한 자립계획을 세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작은 기부와 참여로 자립계획에 시민들을 동참시키는 것이 본 캠페인의 배경이다.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은 첫째, 자립준비청년의 현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둘째, 이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변화도 함께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캠페인의 실질적 내용에 있어 인식 개선 및 모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 세부 프로그램은 다이어리 제작 및 판매를 통한 모금캠페인, 자립정착금 기준 상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립정착금 시범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표 2>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 수행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다이어리 제작 및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명인사 100인의 메시지를 담은 다이어리 판매와 이벤트 수행 전시행사 이벤트로 시민 참여 독려 및 다이어리 배포
연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명: 자립정착금 기준 산출 및 지원방안 연구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명: 자립정착금 시범지원사업 목적: 선행 연구조사를 토대로 시범지원. 자립정착금 기준산출 및 활용방안에 기반하여 자립정착금 지원 사각지대 아동(약 30명)에게 정착금을 지원, 효과성 분석 대상: ①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10명 ② 가정(일반)위탁 종결아동 15명 ③ 양육시설 퇴소자 중 정착금 활용실패경험자 5명(제2정착금)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은 10년 전 진행을 하며 처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처한 자립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사회적, 정책적으로 요구한 캠페인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캠페인은 이후 2019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근간이 되어 재단이 자립준비청년이슈를 다룬 캠페인을 선점하고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

아름다운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를 다루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2019년은 총 5개의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이 시작되었다. 캠페인은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는 목적을 두고 있

다. 본 캠페인의 핵심은 바로 ‘당사자 참여’이다. 물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당사자의 사례를 소개하여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끄는 시도는 있었다. 그러나 기존 캠페인의 당사자 사례 소개는 사례를 내러티브 형식으로 현황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던 반면 열여덟 어른 캠페인은 당사자의 ‘주체성’을 좀 더 부각시켜 제도 및 인식 변화의 ‘주체자’로서 당사자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컨셉을 통해 본 캠페인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의 컨셉

듣다, 그들의 목소리를

- 아름다운재단의 입장에서 기관의 언어로 보호종료아동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대중이 보호종료아동 이슈에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다, 나의 권리를

- 보호종료아동을 도움을 받는 복지의 대상으로 고정화시키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한 당사자 프로젝트를 통해 제도적 문제와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 가는 주체자로 권리를 보장한다.

캠페인 시즌 1은 당사자 인터뷰, 캠페인 리워드 제작 및 크라우드 펀딩, 연극 공연 등 캠페이너 각자가 기획한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표 4> 당사자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명	내용
신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인터뷰 프로젝트 진행 • 한겨레21 연재
전안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배지 디자인 • 원배지, 에코백 해피빈 펀딩 진행 • 디자인 과정 웹툰 연재
박도령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열여덟 어른] 시나리오 집필 • 연극 텀블벅 펀딩 진행 • 연극 행사 기획, 진행

캠페이너 각자의 색깔이 담긴 프로젝트를 통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당사자 스스로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캠페인은 이후 아름다운재단 자체 마케팅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로 확산되었으며, 캠페이너가 직접 참여하는 언론과의 연계도 시작되었다.¹⁰⁾

10)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확산임팩트는 이후 캠페인 임팩트 파트에서 다룰 예정이다.

3.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2는 시즌 1의 ‘나’의 이야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 전반적 인식으로 확대한 이야기이다. 시즌 1이 각 캠페이너의 스토리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및 모금캠페인을 전개하였다면, 시즌 2는 자립준비청년 이슈에 대해 인식 제고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기반으로 캠페이너들의 활동이 진행되었다. 시즌 1과 비교하였을 때 본 이슈에 대한 어드보커시 활동을 좀 더 부각시켰다. ‘고아’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소비하는 미디어 등 자립준비청년이 겪는 생활 속 차별과 인식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당사자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인식 개선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 참여를 유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적 인식 제고라는 대주제 아래 시즌 1과 마찬가지로 시즌 2 역시 캠페이너가 각자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인식개선의 메시지 전달을 좀 더 강화하였다.

<표 5> 당사자 프로젝트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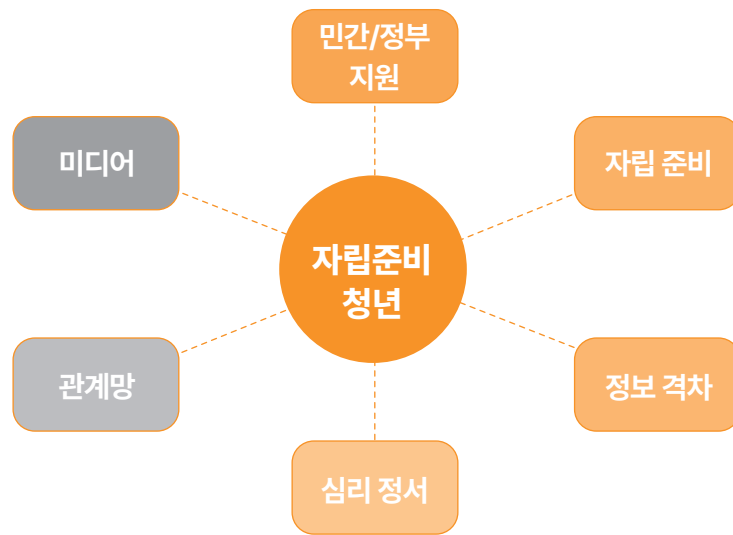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내용
신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기획, 콘텐츠 제작 • 유튜브 [열여덟 어른 TV] 채널, 자립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카페 [우리는 열여덟어른이다] 개설, 운영
손자영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어드보커시, 경향 인터랙티브 협업 진행 •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당사자 모집, 진행
허진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원 강연 위한 당사자 모집, 교육 • 전국 보육원 강연 진행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진행
주경민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릭터 굿즈(머그컵, 폰케이스) 기획, 제작 • 카카오테이머즈 협업 펀딩 • 웹툰 ‘어쩌다 사막’ 연재
안연주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출판, 유통 • 동화책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써니 협업 진행 • 오디오북 출판
박한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런제품 ‘런웨이백’ 기획, 제작 • SM엔터테인먼트, 모델 송해나 협업 진행 • ‘런웨이백’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시즌 2 캠페인은 6개의 당사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열여덟 어른 TV’ 채널을 개설하고, 미디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2개의 기획 영상과 당사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토리인 ‘열여덟, 내 인생’을 제작하여 송출하였다. 당사자 프로젝트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한 전방위적인 메시지 전달은 시즌 1보다 더 큰 반향을 가져왔으며 다양한 기업의 협업도 이끌어 냈다.

4.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

2019년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1은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이야기를 알렸고 2020년 시즌 2 캠페인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 인식과 미디어의 편향적인 ‘고아 캐릭터’ 사용에 대해 알렸다. 특히 시즌 2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메시지 전달에 있어 당사자 프로젝트의 강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캠페이너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고민하고 깨닫는 과정을 거치며 시즌 3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 3은 자립준비청년 이슈를 다시금 우리 사회에 알려 사회적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시즌 1-2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사례를 통해 대중이 이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시즌 3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이야기와 사회적 편견을 이야기 하는 것을 넘어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사회적 지원은 무엇인지 당사자의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나아가 당사자의 목소리가 다양한 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에 반영될 수 있는 프로젝트 진행의도를 갖고 있다.

[그림 2] 프로젝트 주제



시즌 3의 총 7인의 캠페이너 프로젝트가 약 1년 반 동안 수행되었다. 시즌 3에서는 기존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캠페이너와 함께 신임 캠페이너의 합류도 동시에 이루어져 내용과 방식에 있어 다양성을 좀더 이끌어 냈다.

<표 6> 당사자 프로젝트 내용

프로젝트명	내용
신선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콘텐츠 제작 • 유튜브 [열여덟 어른 TV] 채널, 자립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카페 [우리는 열여덟어른이다] 운영 • 그룹홈, 위탁가정 1:1 대면 교육 진행

허진이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민 팟캐스트 기획, 제작 • [열여덟 어른] 인스타그램 채널 개설, 운영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진행
강영아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촌 브이로그 영상 제작 • 당사자 관계망 설문조사 진행
조규환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상 버스킹 행사 진행 • 광주역 버스킹 행사 진행 • 땡큐 버스킹 브이로그 영상 제작
박강빈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우리 인스타그램 운영 (100일간의 자립 경험 공유) • 당사자 자립 경험 인터뷰 진행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손자영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패러디 일러스트 협업 • 온라인 전시회 영상 제작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진행 • 'MZ세대, 열여덟 어른의 내일을 말하다' 청년 토론회 진행
이진명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원 기획, 제작 총괄 • 음원 '토이스토리' 제작 • 뮤직비디오 제작 • 음원 유통(카카오 엔터테인먼트)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공연

시즌 1, 2에서 캠페이너의 개별 프로젝트를 통해 캠페인이 구성되었다면 시즌 3에서는 특별히 그룹 프로젝트도 기획되었다. 캠페이너가 함께 모여 각 이슈별 당사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하기 위해 '이슈 스터디'를 기획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캠페이너로서의 활동을 2~3차례 수행한 2인의 캠페이너가 2개의 팀을 이루어 '맞춤형 정보 프로그램' 및 '자립 보드 게임' 등 2개의 프로젝트도 기획하였다. 2개의 팀 프로젝트의 경우 예산과 시기적 한계로 진행까지 이루어 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1) 캠페이너의 역량 확대 2) 캠페이너 간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젝트 시너지 강화 등 이후 캠페이너 활동에 있어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개별 캠페이너의 단일 프로젝트 수행의 단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캠페이너의 프로젝트 수행 역량은 이후 열여덟 어른 캠페인의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이 되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이슈를 다룬 2013년 '자립정착의꿈' 캠페인에서 2019-2022년 진행된 '열여덟 어른' 캠페인까지 살펴보았다. 캠페인은 사회 정치적 목적 따위를 위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운동¹¹⁾이다. 아름다운재단이 오랫동안 긴 호흡으로 자립준비청년 이슈를 다룬 캠페인을 통해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을까? 그것은 바로 자립준비청년을 '보통의 청춘'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 보통의 청춘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서 모든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캠페인의 메시지는 첫째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 열여덟에 어른이 될 수 밖에 없는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동정과 편견으로 보지 말고 '보통의 청춘'으로 봐달라는 메시지였다.¹²⁾

<안녕, 열여덟 어른, 김성식>

11)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12) 김성식.(2022). 안녕, 열여덟 어른. 파지트

아름다운재단 '열여덟 어른' 캠페인



당사자 프로젝트



신선 캠페이너

- 기간: 2019~현재(시즌 1~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당사자 인터뷰 프로젝트 진행, 한겨레21 연재
 - 팟캐스트 [열여덟 어른이 살아간다] 기획, 제작
 - 유튜브 [열여덟 어른 TV] 채널, 자립정보 영상 콘텐츠 제작
 - 네이버 카페 운영
 - 그룹홈, 위탁가정 1:1 대면 교육 진행



박도령 캠페이너

- 기간: 2019(시즌 1)
- 주요 활동 내용
 - 연극 [열여덟 어른] 시나리오 집필
 - 연극 텀블벅 펀딩 진행
 - 연극 행사 기획, 진행



전안수 캠페이너

- 기간: 2019(시즌 1)
- 주요 활동 내용
 - 원배지 디자인
 - 원배지, 예코백 해피빈 펀딩 진행
 - 디자인 과정 웹툰 연재



허진이 캠페이너

- 기간: 2020~현재(시즌 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보육원 강연 위한 당사자 모집, 교육
 - 전국 보육원 강연 진행
 - '열여덟 어른 투자설명회' 진행
 - 고민 팟캐스트 기획, 제작
 -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진행



손자영 캠페이너

- 기간: 2020~현재(시즌 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애드보커시, 경향 인터랙티브 협업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패러디 일러스트 협업
 - 온라인 전시회 진행 및 영상 제작
 - '미디어 캐릭터 시상식' 진행
 - 청년 토론회 개최



안연주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 2)
- 주요 활동 내용
 -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출판, 유통
 - 동화책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 SM엔터테인먼트, 소녀시대 써니 협업 진행
 - 오디오북 출판

아름다운재단은 201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의 현실화, 체계화를 요구하는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을, 2019년부터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며,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여덟 어른’ 캠페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소개합니다.



2021



2022

왼쪽부터 신선 전안수 박도령 허진이 손자영 주경민 박한수 안연주 이진명 조규환 박강빈 강영아

자립준비청년 23년 임팩트 보고서



박한수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 2)
- 주요 활동 내용
 - 런웨이 가방 기획, 제작
 - SM엔터테인먼트, 모델 송해나 협업
 - 런웨이백 네이버 해피빈 펀딩 진행



주경민 캠페이너

- 기간: 2020(시즌 2)
- 주요 활동 내용
 - 캐릭터 굿즈(머그컵, 폰케이스) 기획, 제작
 - 카카오테이커스 협업 펀딩
 - 웹툰 '어쩌다 사막' 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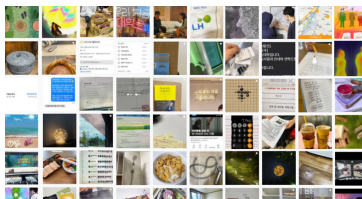
이진명 캠페이너

- 기간: 2021(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음원 기획, 제작 총괄
 - 음원, 토이스토리 제작
 - 뮤직비디오 제작
 - 음원 유통(카카오 엔터테인먼트)
 - '열여덟 어른의 세계' 행사 공연



조규환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옥상 버스킹 행사 진행
 - 광주역 버스킹 행사 진행
 - 땀큐 버스킹 브이로그 영상 제작



박강빈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배우리 인스타그램 운영 (100일간의 자립 경험 공유)
 - 당사자 자립 경험 인터뷰 진행
 -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강영아 캠페이너

- 기간: 2021~2022(시즌 3)
- 주요 활동 내용
 - 일촌 브이로그 영상 제작
 - 당사자 관계망 설문조사 진행

자립준비청년사업 시기별 주요 특성

1. 정책변화

1) 히스토리¹³⁾

가정 외 보호 아동 자립의 근거는 2012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으로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¹⁴⁾ 그 이전에는 1993년 자립지원센터 7개소 운영, 2006년 전세주택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2007년 아동복지시설 자립전담요원 배치,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등 자립을 위한 정책이 일부 시행되어 왔다.

2012년의 법 개정으로 가정 외 보호 체계 내의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과 전담 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의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7개의 조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은 자립준비의 시행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보호 중에 있는 아동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한다. 또한 보호 중인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과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산형성 지원사업 대상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포함하고 있다.¹⁵⁾

2019년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발표되면서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의 보호노력이 강화되어 분야별 세부 지원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그동안의 아동복지정책이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것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가 바뀐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청소년들이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원 등의 실질적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도 자립정착금 지급되어왔지만 지자체마다 지급액이 상이하거나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퇴소시 최소 5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한선을 정하고 매달 지급되는 자립수당도 신설되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21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호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고 자립준비 수당 지급 시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생활과 주거지원을 확대하였다. 명칭은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연장아동과 조기종료아동이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정부는 2022년 11월에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내놓게 된다. 보호연장아동과 조기종료아동이 자립준비청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화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 보호연장아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연장 시기에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13) 아동권리보장원. (2023).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14) 개정 전 아동복지법은 제11조(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목적 달성 시 퇴소한다는 내용만 있음

15) 이상정, 유령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1> 아동복지법 요약표

구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자립지원	제38조(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주체: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대상: 위탁 보호종료아동 및 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18세 이전 퇴소자 중 자립지원 필요 인정된 자 지원내용: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 자립 관련 실태 조사 및 연구,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제38조(자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타 지원 내용: 자립 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교육 지원 대상: 대리 양육·가정위탁 보호·아동복지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자립지원 계획	제39조(자립 지원 계획의 수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주체: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지원 대상: 15세 이상 아동 지원 내용: 개별 아동에 대해 매년 수립, 종사자 대상 교육 		제18조(자립 지원 계획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 지원 계획 항목: 아동의 적성·육구, 사회성 발달 정도·자립능력·수준 등 아동 상태 평가, 정기 진로 상담, 체험·교육 프로그램, 주거·취업·자산 형성·정서 지원 등 공적 서비스,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비고: 아동의 의견 존중, 전문가 의견 청취
자립지원 전담기관	제40조(자립 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주체: 국가 및 지자체 주요 내용: 자립 지원 관련DB 구축·운영,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례 관리 등 업무 위탁 운영 방식: 법인 위탁 		
협의회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제39조(아동자립지원추진 협의회 구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위원장 1명, 11명 이내 위원장: 복지부 고위 공무원 중 장관 지명 위원: 국무조정실 포함 11개 중앙행정기관 3,4급 공무원 협의·조정 사항: 주거·생활·교육 지원 사항 등 자립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자산형성 사업지원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주체: 국가 및 지자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 주체: 보건복지부 장관 운영 방식: 법인 위탁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은행 통장 개설 후 아동에게 인계) 대상: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대리 양육·전문 치료 기관, 요양소 입소 등 보호 조치 아동, 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수급자 가정 아동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한 아동 운영 방식: 아동이 적립한 금액의 2배 금액 매월 지원 비고: 원가정 귀가 후 희망 시 계속 지원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업무: 아동 관리, 후원자 발굴 관리, 교육·홍보, 조사·연구·평가 등 		제20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범위: 자산 형성 지원사업 대상 아동 사후 관리 포함

2) 연도별 지원내용¹⁶⁾

항목	2019 이전	2019	2021	2022	2023
명칭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연령		만 18세+α	만 24세+α		
보호 연장					
사유	대학 이하 학교 재학 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 중지 단순 휴학 1년 이내 허용	어학연수 시 보호 일시중지 폐지, 단순 휴학 2년 이내 허용		
미성년후견제도		미성년후견제도 비활성화 로 법정대리권 공백 등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추진		
전달 체계 사후 관리					
기관	자립지원센터 위탁사업 7개소 운영(1993)	자립지원전담기관 8개 시·도에 운영		자립지원전담 기관 17개 시·도에 운영	
인력	아동복지시설 자립전담 요원 배치(2007)	전담요원은 시설마다 배치되어 분절적으로 보호아동 자립을 지원		자립지원전담 기관에 신규 자립지원전담 인력 120명*	자립지원전담 인력 180명
플랫폼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자립전담요원 배치 (2012)				온라인 플랫폼 자립정보ON 개설
기본 생활					
자립정착금	최대 500만 원 지자체별 상이	최소 500만 원		800만 원 권고	1,000만 원 권고 (분할 지급)
자립수당		월 30만 원 신설 (시범운영) 보호종료 3년 이내	월 30만 원 보호종료 5년 이내	월 35만 원	월 40만 원
디딤씨앗 통장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2007)	정부매칭비율 1:1 (최대 4만 원)	정부매칭비율 1:1 (최대 5만 원) 보호종료 2년→ 3년 이내(2020)	정부매칭비율 1:2 (최대 10만 원)	
주거					
지원 대상			보호연장아동 추가		
주거비 등 사례관리		7개 시도	17개 시도 1,000명		
주택	전세주택, 영구임대주택**	원룸형 주택 무상임대기간 만 20세 이하까지	중형주택 추가 (전세임대) 역세권 등 공급 확대(매입임대)		공공임대주택 2,000호 공급 무상임대기간 만 22세 이하까지
의료					
의료급여					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혜택
진로 취업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기간: 1년 지원규모: 최대 960만 원	지원기간: 2년 지원규모: 최대 1,200만 원

* 전담기관이 전국 17개 시도에 정비됨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자립지원전담인력으로 명명함. 기존에 시설마다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보호아동의 자립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로 업무를 분담함.

**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 지원, 청년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 희망하우징에 지원대상자로 포함.

16)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 관계부처합동. 2021.7.13.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지원강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 2022.11.17.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

2. 민간지원

1) 히스토리

본 절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민간 지원사업의 시기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아닌 비영리 공익재단, 기업재단이나 기업사회공헌 등의 재원 또는 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지원의 주체는 비영리 공익재단과 기업 사회공헌을 중심으로 기술하여 본 사업과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기여하고 있는 자금제공자와 수행조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이 운영되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직접사업을 하지 않지만 모금과 배분을 통해 자금과 실행을 기획, 연결하는 ‘중간지원기관’, 그리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주체’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았다. 다만 사업의 비중이 큰 아동자립지원단이나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단과 같은 정부기관은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재단의 상시 지원과 연계된 사업은 제외하였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민간지원은 저소득, 요보호 아동을 지원사업 내 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시행되다 201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이전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한 교보교육재단 ‘희망다솜사업’은 2004년부터 저소득 가정을 위한 대학등록금 사업을 해오면서 자립준비청년이 그 대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되었는데, 현재는 장학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첫 번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차정몽구재단은 2014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1박2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이 시기의 지원은 주로 장학금 지원과 교육 및 기술 지원, 취업 알선 등 비현금성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가장 규모가 큰 민간 지원은 ‘삼성희망디딤돌’ 사업으로, 삼성전자에서 임직원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지자체 협력으로 자립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한 사업이다.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국가 보호체계에서 퇴소한 청소년이며 주거공간과 교육을 제공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015년에 개소해 현재 10개 지자체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총 494억 원이 투입되었다.¹⁷⁾

기업이나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주로 아동자립지원단과 한국아동복지협회와 협력을 맺어 수행했고, 2019년 아동자립지원단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전한 후에 일부 사업은 종료되거나 한국아동복지협회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속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름다운재단에서 당사자 캠페이너를 중심으로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알리는 ‘열여덟어른 캠페인’으로 이슈가 본격화되었다. 당사자가 직접 출연하는 방송 인터뷰와 언론기사는 이들의 힘겨운 자립 현실을 인식시키고 현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키게 되었다. 이 시기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지원사업 등도 주목을 받게 된다. 브라더스키퍼의 창업자는 보육원 출신 당사자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17) 삼성전자 사회공헌 홈페이지. <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sustainability/corporate-citizenship/community-engagement/giving-hope-for-our-next-generation-to-stand-independent/>

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 조경사업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해 주거지원, 일상생활 기술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소이프는 양말, 모자 등 디자인 생활 소품을 제작 판매하는 기업인데, ‘보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디자인기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창업자가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해오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해 수익금은 보육시설 청소년 디자인 교육,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운영, 주거지원, 장학금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변화를 타고 2019년을 기점으로 관련 기금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고 조직 내 사업의 비중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가게 등은 서로 다른 출처의 기부금으로 3개 이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부처가 다양해지고 지원하고자 하는 영역도 세분화되면서 수행기관들이 협약을 맺고 동명인 사업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기도 한다. 2023년까지 가장 규모가 큰 기부처는 두나무로, 자립준비청년의 진로를 지원하는 ‘두나무 넥스트잡’에 향후 5년간 510명을 3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카카오커머스는 2020년 10주년 기념으로 아름다운재단에 총 10억 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지원을 위해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 장학금 외 생활비와 주거 지원, 특히 금융과 재무교육의 비중이 높아졌다.

자립준비청년 이슈레이징에 성공하면서 사업수행과 모금에 있어 동형화 현상을 보인다. 당사자 캠페인 또는 당사자를 모금요청 전면에 내세우는 곳은 기아대책, 아름다운가게, 월드비전 등이 있다. 관련 이슈가 이목을 끌고 공감을 얻게 되면서 ‘자립준비청년’ 키워드 광고 비용은 3년 전 몇원 단위에서 2022년에는 3만 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한편으로 기부처에서는 이들을 위해 기업 전략 또는 업과 부합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나 적절한 수행기관을 찾기 어려운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2) 연도별 지원내용

2019년 이전 시작된 사업의 운영 주체 및 연도별 지원 내용*

운영 주체	기부자	사업명	내용	운영기간
중앙아동·청소년 자립통합사업단	삼성전자	생활관, 자립체험관	한국형 자립생활모델	2014~
	현대차정몽구재단	온드림 숲속힐링교실 온드림 청사진	산림치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거, 자기개발, 어학연수, 서포터즈 역량	2014~ 2017~2019
	교보교육재단	희망다솜장학사업	대학 등록금(저소득층 가정 포함)	2004~
아동자립지원단	YBM	어학교육프로그램	YBMNET 어학 수강권	2018
	스위프트코리아	정규직 지원사업	스위프트코리아 정규직 채용	2016~2017
	신세계 면세점	정규직 지원사업	신세계면세점, 신라면세점 정규직 채용	2018
	서울경제직업전문학교	디지털디자인 양성과정	UX 디자이너 교육	2018
	SKT	선한올타리 퇴소아동지원사업	정규직 취업 연계, 멘토 연결, 속속 제공	2017
한국아동복지협회	에쓰오일	S-Oil Dream 장학금	장학금, 기술 자격 교육(연간 1~3억원)	2016~
	현대차증권	찾아가는 경제교육	찾아가는 금융 코칭	2018~
	포스코1%나눔재단	두드림(Do Dream) ACT	진로, 생활 지원금, 취업 성공 수당, 면접 교육	2019~
서울시아동공동생활 가정지원센터	메트라이프재단	자립에 날개달기	자립준비 교육비, 금융 진로 교육	2016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화생명	함께 멀리 기부특약	의료비보장 보험 지원	2017~
홀트아동복지회	현대백화점	파랑새, 꿈꾸는 날갯짓	진로 장학금, 교육비, 정서 지원	2018~
사회투자지원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자단	터무니없는집	주거 지원, 금융 교육	2018~
사회연대은행	한화생명	맘스케어DREAM 비상금 사업	자금 지원, 교육 상담	2018~
	한화생명	청년꿈 지원사업 '청년 비상금'	꿈 지원금, 재무·진로 및 비전 교육	2018~

2019년 이후 시작된 사업의 운영 주체 및 연도별 지원 내용**

운영 주체	기부자	사업명	내용	운영기간
사회연대은행	HSBC코리아	청소년비전지원사업 '하이파이브'	자립 지원금, 재무 및 금융코칭	2019
	서민주택금융재단	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	주택 무이자 대출, 주택 지원	2020~
	아름다운가게	청년비전프로젝트 플랜V	진로·생활·적금지원금, 멘토링, 취업 컨설팅	2021~
아름다운가게	두나무	두나무 NEXT JOB 자립준비청년 창업지원	창업지원, 자립준비청년 고용 기업 지원	2023~
	아름다운가게	보육원퇴소 자립지원금	주거환경 개선, 생계비, 교육비 등	2010~
	아모레퍼시픽	아침의 릴레이	긴급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2019~
	아름다운가게	청년인턴십	인턴십	2020~2021
이랜드복지재단	아름다운가게	아동양육시설 대학생 장학지원	생활비, 맞춤형 교육비	2021~2022
	이랜드복지재단	굿럭굿잡 캠페인	면접복 키트 지원	2019
한국아동복지협회	이랜드복지재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2020
	현대중공업그룹1%나눔재단	자립지원 및 취업연계사업	중공업 분야 기술 교육	2020~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드림텍, 유니퀘스트	드림텍-유니퀘스트이공계열 지원사업	이공계열 지원사업	2022~2024
	KB손해보험	희망의징검다리	세어하우스, 월세 및 자립정착금	2020~2021
홀트아동복지회	KRX국민행복재단	드림나래	교육비, 생활 안정 지원금	2022~
	KB손해보험	런런 챌린지	기술 교육, 컨설팅, 생계비	2021
KSD나눔재단	사회연대은행	네 꿈을 응원해	예체능 분야 멘토링 지원	2021
	한국예탁결제원	마음이음지원사업	복지지원	2022
기아대책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입주지원금	LH 입주자 생필품, 가재도구 지원	2023
아이들과미래	카카오뱅크	모두의자립	금융 교육	2023

* 아름다운재단. (2019).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토론회.

** Ibid. 2023년 기사 검색 요약.

3. 공공 및 민간의 지원 경향

앞에서 2019년 전후의 민간지원사업 히스토리와 경향을 살펴보았다면 본 장에서는 2023년 현재 시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지원 경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2023년 개설된 플랫폼인 자립정보ON 사이트에 게시된 지원사업 게시글을 분석해보았다. 자립준비ON이 개설된 지 채 1년이 안되었기에 당사자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주 구분이 모호하거나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조회수는 게시글이 게재된 기간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지역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자립정보와 관련된 정보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이나 민간의 지원사업은 거의 전수가 등록되어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지원사업>은 소득, 주거, 금융, 진학, 취업, 건강, 법률, 기타 8개의 범주에 총 264개의 자립 준비를 위한 정보 게시글이 있다. 게시글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별 자립전담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영리재단, 기업 등의 민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모두 볼 수 있다.

지원사업 게시글은 총 264개, 게시글 개당 평균 조회수는 150회이다. 공공기관과 민간의 비율은 공공이 57%, 민간이 43%로 공공 지원사업이 조금 더 많이 게시되어 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73%로 많았다. 조회수는 일반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118)보다 자립준비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162)이, 공공기관(134)보다 민간기관(150)이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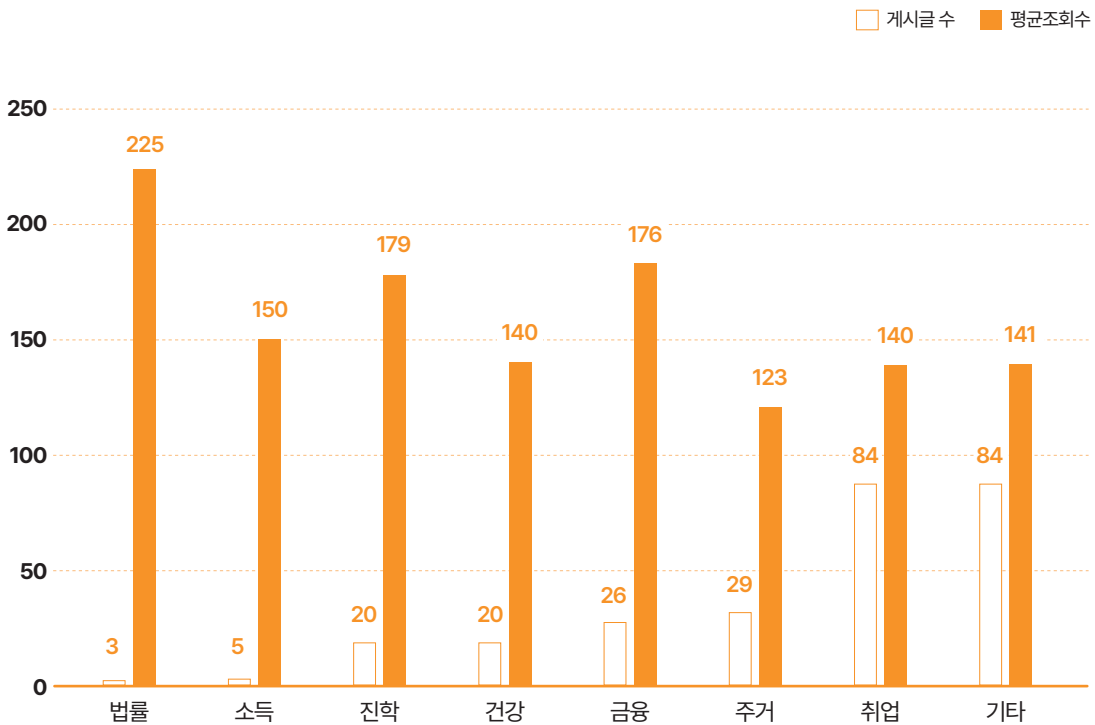
[그림 1] 지원사업 게시글 종류 및 주체



분야별 게시글 수는 취업 84, 주거 29, 금융 26, 건강과 진학 20, 소득 5, 법률 3개 순으로 취업 지원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법률과 소득을 제외한 진학, 건강, 금융, 주거가 20여 개인 것에 비해 취업 지원이 압도적으로 많다. 취업지원의 내용을 보면 취업을 위한 교육, 인턴십이나 계약직 또는 정규직 등의 일자리를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또한 취업과 같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내용은 행사참여, 자립을 위한 생활 교육이나 체험, 커뮤니티 지원 등이 있는데 취업이나 진학과 같은 다른 카테고리와 중복되는 지원사업도 있다.

지원사업 게시글이 공급 측면이라면 당사자 수요는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조회수를 살펴보았다. 분야별 평균 조회수는 법률 225, 진학 179, 금융 176, 소득 150, 취업과 건강이 각각 140, 기타 141, 주거 123 순이다. 게시글 총수 자체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분야별 조회수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는 한번 사이트에 접속하면 마감 기한이 끝난 것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게시물을 클릭해 본다고 짐작할 수 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은 법률 지원은 게시글이 3건에 불과한데 이중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노동, 대학 경제 분야 각종 정부지원 복지 제도 및 신청방법 소개 및 생활법을 지식 법교육' 1건이 조회수 439로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부 지원 및 복지 제도와 신청방법에 관한 안내나 교육이 부족한 가운데 그 수요는 높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8개 분야 중 가장 낮은 조회수를 보인 것은 주거분야다. 사업 중 지원자 부족으로 모집 연장을 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는데, 3인이 함께 생활하는 세어하우스 지원의 경우 60만 원 상당의 월세와 만기시 임대주택 우선권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추가모집 공고를 하였다.

[그림 2] 지원사업 게시글 수 및 평균조회수



조회수 높은 상위 40개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비, 장학금, 저축 매칭 지원 등의 현금 직접 지원이 두드러진다. 다음으로는 취업연계로, 교육이나 인턴십 기간 중에 급여가 제공되고 이후 특정 기업이나 직종으로 취업이 연계되는 사업에 관심이 높았다. 건강검진이나 생활꾸러미 지원과 같은 현물 지원도 높은 조회수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낮은 사업은 단순 행사 참여, 문화나 취미 교육,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그리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이다. 현금지원의 경우 적금매칭은 2만~2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분할해 지급하고, 인턴십 급여지원은 50~70만 원 가량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단위의 일시지원은 장학금이었으며 긴급 생계나 위기지원을 위해 목돈을 지원하는 곳은 3개 사례 정도이다.

<표 4> 상위 40위 지원사업

분류	사업명	사업주체	최대금액	지원내용
진학	한국관광공사 호텔분야취업연계 추가모집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급여	현장실습
금융	금융지원프로그램 우리가 WON하는대로	청년의 들	2,000,000	저축시 매칭
취업	희망디딤돌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사업	(재)함께일하는재단		직무교육, 취업
취업	CJ도너스캠프 꿈키움 아카데미	CJ도너스캠프	2,000,000	교육,계열사 취업 연계
기타	2023 청년생활안정지원사업	한국사회복지관협회	3,000,000	긴급생활비
진학	IBK 희망나래	IBK행복나눔재단	5,000,000	장학금,경제교육,취업컨설팅
법률	세발자전거(자립지원 법교육 프로그램)	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자립지원 교육
기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지원사업 모집	공무원연금공단		
주거	자립준비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	480,000	청약저축통장 납입액 지원
진학	skylife 자격증 장학사업	kt그룹 희망나눔재단	2,500,000	자격증 지원
기타	[여행]하나로 하나 된 청춘 나래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5,000,000	여행 한팀당 500만 원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3,000,000	프로그램 참여/참여수당
기타	자립준비청년 “드림캐쳐”페스티벌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행사
취업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인턴모집	(사)함께만드는세상	실습급여	소셜섹터 인턴십
취업	자립준비청년 취업연계 지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타이어,호텔 취업연계
취업	마커스 인공지능 아카데미 1기 수강생	Marcus AI Academy		
금융	신한 쏘(SOL) 금융자립 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협회	5,400,000	적금 매칭
기타	“같이가치”비전장학금 지원사업	지파운데이션	1,000,000	장학금
진학	IBK자립준비청년 장학금취업지원	IBK기업은행	5,000,000	장학금
주거	삼성희망디딤돌 센터 입주자 모집	삼성	현물	입주
금융	한화생명 자립준비청년 긴급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	500,000	긴급생활비
건강	장바구니집사들 식재료 꾸러미 지원사업	KBS강태원복지재단	현물	식재료
건강	현대차정몽구재단 건강검진 프로그램	중앙사회서비스원	현물	건강검진
기타	나의 첫 살림 사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1,500,000	살림구매
기타	김장훈의 키다리아저씨 콘서트 초청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콘서트 참여
건강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한국아동복지협회	5,000,000	의료비
기타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론칭파티 청년 킴은	기아대책		행사 참여
주거	(충북)청년월세특별지원	청주시	2,400,000	임차료
취업	자립준비청년 취업연계교육	삼성전자	1,200,000	제빵,기능사,교육훈련비
건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건강검진)	중앙사회서비스원		건강검진
금융	두나무 넥스트 JOB 창업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	20,000,000	대출, 경영컨설팅
진학	미래내일경험사업	고용노동부	1,000,000	탐방, 인턴, 인턴급여
기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주)에스티아이		자격증취득
취업	드림아카데미 자격취득 교육 지원사업	한국아동복지협회	700,000	멘토활동비, 문화체험 자조모임
금융	카카오뱅크 모두의 자립	아이들과미래	700,000	진로설계, 멘토지원
진학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진로로드’	공무원연금공단&진로숲재단		진로설계, 멘토지원
취업	자립준비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사회연대은행		인턴십, 급여지원
기타	보호연장이동 프로그램 자립 오락실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2,000,000	여행 1인 최대 200만

이상과 같이 자립정보ON 포털 사이트를 통해 2023년 지원사업의 내용, 유형, 대상 등을 개괄하였다. 이전에 온라인 검색을 통해 지원 정보를 조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지원사업이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정 정도 데이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의 분석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자립준비청년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손길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당사자를 만나기 위해 지원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설계가 전체 지원사업의 그림 안에서 필요해 보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년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자립을 위해 실제 취업이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보존되는 방식을 선호하지만 취업의 문턱을 넘기에는 다소 추상적인 사업들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지원의 경우 생활비의 일부를 소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다수인데, 큰 위기를 대응할 만한 자금을 지원하는 곳은 드물다. 이런 차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의 대출 사업을 민간에서 시도해 볼만하다. 현장이나 전문가들이 종합적 지원과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업에는 지원자를 모집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사업이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자립정보ON에 게시된 사업의 내용과 실제 모집 정도, 사업 성과 그리고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중요도가 높은 지원 영역이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